

11월의 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 1.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의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충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의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3.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4.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9년 11월 5일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메조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치앙마이 대부흥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정경자, 정미란,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행하는 믿음

독일인이었던 조지 풀러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빈 손으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산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움직이는 동사이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디매오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겔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뛰어 갔습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가 바다위로 내릴자 물길에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 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적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자 오늘 우리의 생애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꿈이 무엇이나?'라고 물으셨을 때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믿음의 그릇은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꿈의 그릇이 없이 부르짖으면 10년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꿈이 있고, 그것을 믿고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소경 바디매오가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꾸어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품고 행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Octo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2019 영적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대성회



한국과 세계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대성회가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10월 18일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 4, 5홀에서 개최됐다. 기도대성회 1부에서는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에드윈 알바레스 목사(파나마 호산나국제선교회)와 안드레이 티신코 목사(우크라이나 신세대교회)가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서 300명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1부 대표 대화장 이영훈 목사는 '성령이여 임하소서'(행 1:4-8)를 주제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성령충만에 있음을 전하였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예배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태근 목사의 사회로 '세계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한 예배'를 주제로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2부 예배 시작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왔으며 김경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했다.

2부 예배 주강사인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는 '바람 같은 성령'(요 3:1-8)을 주제로 설교하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면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운행 하셔서 우리 삶에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다가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힘차게 달려가려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놀라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그러나 나는 힘겨운 개척교회 시절 최자실 목사님이 가끔 우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에 굉장한 거부반응이 생기고 감정이 악화됐다. 왜냐하면 내가 자라난 환경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 애족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라며 일제 강점기 36년, 6.25 한국전쟁 등 뼈아팠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조용기 목사는 "앞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희망'을 주셨고 1960년대부터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가지고 이 민족에게 구원과 함께 소망을 주려고 애썼다. 온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이 땅의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에 이 민족을 사용하

기 위해 높여 주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전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앞에 높여 주셨다고 말한 조용기 목사는 "그동안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때"라며 "한국의 일천만 성도와 한국교회가 역사 이래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할 때가 왔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 민주주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더욱 부강하고 발전하게 된다"고 축복했다.

2부 예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세계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 세계교회의 선교사역, 한국교회의 부흥과 하나 됨을 위해 기도했으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통성기도를 했다.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인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이번 CGI 콘퍼런스와 기도대성회에 함께 참석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더 명확하게 갖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중략)...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중략)...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길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모두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의 길을 찾고 허물의 길에서 성결의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음과 몸이 병들어서 치료와 건강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삶의 부요와 행복의 길을 찾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디서도 이러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7)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염검을 두어 그들이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자기들의 힘을 모아 높은 바벨탑을 세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나온 심판을 인력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언어를 흠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결국 성 쌓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인간은 종교적 길을 찾아 헤매다 공허하고 혼돈한 땅에서 스스로 진리의 길을 만들고자 했으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지만 그러한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모두가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무신론을 따라잡니다. 그들은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죽으면 흠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자기가 재림 주요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

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마귀를 만들어 놓은 거짓의 길에서 참된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2.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

그런데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고 공생애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길을 깨우쳐 주셨으며 최후에는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물을 통해 끝없는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지도 없이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가는 지도는 바로 성경이요, 그 지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에 종교는 많습니 다. 지도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이름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3:1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 밖에 없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 길을 찾기 위해 헤매지만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

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용서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받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성회를 인도했을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성회에 참석했는데 그분은 심장마비 증세로 절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과로하지도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았습니 다. 나이가 70세에 심장마비 증세가 있으니 그로서는 끝장이 난 셈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은 얼굴에서 가슴까지 온통 암이 퍼져서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지막 저녁 성회를 인도하는데 그 자매님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겁이 좀 낫지만 순종하여 단호히 암에서 놓여 남을 받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또, 그 목사님에게도 “심장마비를 낫게 하여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는 성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두 분이 다 나아서 따님은 피아노 반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사님은 고령의 나이에 다시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계속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교회 성장 위한 제28차 CGI 콘퍼런스 성료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 48개국에서 참석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기도는 교회 성장의 비결” 강조



제28차 CGI (Church Growth International) 콘퍼런스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 등에서 진행됐다. 세계 교회 성장을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올해 28차를 맞아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전 세계에서 모인 목회자들에게 순복음의 성과와 교회 성장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다.

이번 대회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강사로 나서 교회 성장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사전 등록만 48개국 1920명이 할 정도로 대회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10월 16일 대성전에서는 CGI 콘퍼런스 개최 예배가 열렸다. 이날 제89회 추계지·구역장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는 빌립보서 4장 6~7절을 본문으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며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며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뤄진다. 기도하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성혜 총장

(한세대학교)은 ‘부흥의 숯불이 되자’, 사티쉬 쿠마르 목사(인도 갈보리templ)는 ‘교회 성장의 4가지 비결’, 로버트 카사로 목사(스와질란드 예수콜스워십센터)는 ‘이스라엘 지파의 등장’, 디산 위크라마라트네 목사(스리랑카 피플스처치)는 ‘하나님의 도구는 당신이다’, 켄 엘드레드 목사(미국 리빙스톤파운데이션)는 ‘교회 성장과 번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끌며 교회 성장에 대한 비결을 전했다.

설교 후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축사했고 이영훈 목사의 인도로 통성기도가 이어졌다. 대성전을 가득 메운 CGI 회원들과 성도들은 “주여” 삼창을 외치며 ‘교회 성장과 목회를 위해’ ‘영적 부흥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16~17일 바울성전에서는 세계 선교 방안에 대한 논의와 교회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CGI 콘퍼런스 세미나가 진행됐다.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부흥의 원리를 피력했다. 세미나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국어로 통역이 이뤄졌고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들도 참석해 교회 성장의 원리를 배웠다.

세미나에서 조용기 목사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행 3:1~10)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내게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

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선포했다. 또한 “크리스천은 성령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것을 강조했다.

CGI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18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대성회에 참석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19일에는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 기도원에서 기도굴을 체험하며 성령운동과 기도운동을 배웠다.

기도원에서는 리차드 로버츠(미국 오랄로버츠 에반젤리스트 어소시에이션) 밥 로저스(미국 에반젤 월드 플레이어 센터) 제임스 마로코(미국 킹스 캐스트럴 앤드 채플) 목사의 기도 인도로 성령대망회가 진행됐다.

1976년 설립된 CGI는 이듬해에 제1회 CGI 콘퍼런스를 시작한 후 꾸준히 콘퍼런스를 진행하며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흥 비결인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과 성령의 메시지, 여의도순복음교회만이 갖고 있는 구역 조직 등을 전 세계에 보급해 세계 교회들의 건강한 교회 성장을 돕고 있다. CGI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이는 목회자들은 실제로 교회 성장 비결을 배워 목회에 적용해 각 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등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다. 또한,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명교회 담임목사인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도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